



[7월 활동보고서]

주제 : 양천구 옛지명 가운데 현재 쓰고 있는 지명 찾기

기록화 방법	인터뷰, 옛 사진 등 기록 수집		보고서 회차	1회	제출일	2022. 7. 31.
주요 장소	신월6동 신곡시장 일대	장소 설명	신월6동지역은 1960~70년대 집단이주자 거주지역으로 개발된 지역			
		수집 일	2022. 7. 1.~ 2022. 7.30			
		활동가	김정은, 서인숙, 윤명옥			
참고자료	6월 활동일지, 예비질문지					
금번 활동 내용	[주요목표] 양천구의 옛지명 조사를 위한 주민 인터뷰					
	[주요결과1] 2022년 7월 22일 신정동에서 인터뷰 대상자 000을 만나 인터뷰 진행 (인터뷰 내용 추후 제출)					
	[주요결과2] 현 신월6동에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 중랑천과 한강의 범람으로 수해를 입은 수재민이 집단 이주하여 생활했던 지역에 대한 생활상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변화상을 구체적으로 인터뷰함. 사전 인터뷰를 했던 000 씨와의 인터뷰 개요. 000 씨는 천막촌에서 거주하다가 부모님이 집을 지어 그곳에서 결혼할 때까지 살았음. 결혼 후에도 그곳에 거주하시던 부모님이 아이들을 돌봐주셔서 지속적으로 그 지역과 교류함. 그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서 부모님도 집을 팔고 떠나게 됨.					
추후활동 계획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면담일지 작성					
사진						

[7월 활동보고서]

주제: 자연 마을, 은행정 마을의 옛 모습과 지명 찾기

기록화 방법	인터뷰를 통한 기록 수집		보고서 회차	2회	제출일	2022. 7. 31.
주요 장소	·양천구 신정4동 ·김포군 양동면 신정리 은행정마을	장소설명	현재 양천구 신정4동, 신정3동 인근 옛날 김포군 양동면 신정리 은행정, 땃골, 넓은들마을			
		수집일	2022. 7 1.~ 2022. 7.30			
		활동가	김정은, 서인숙, 윤명옥			
참고 자료	6월 활동일지, 예비 질문지					
금번 활동 내용	[주요목표] 양천구의 옛 지명 중 신정동 옛 지역인 넓은들, 은행정, 땃골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술자 인터뷰 질문지를 작성해 은행정 부근의 마을 조사를 위해 주민 박영근씨와 인터뷰를 실시한다.					
	[주요결과1] 2022년 7월 22일 양천구 은행정 마을에서 태어나 70여 년을 살아온 면담 대상자 박영근씨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 내용을 토대로 면담일지를 작성했다					
	<p>[주요결과2]</p> <p>-1950년대 이후, 은행정 인근에는 신트리(새터), 신트리 고개 너머에 있는 동네라는 뜻의 넓은들(넓은들, 땃골), 당골 또는 당곡(신월4동), 곰달래, 오목내 인근의 충청촌(단산) 등이 있었다. 은행정 마을 부근엔 드넓은 논들이 있었고 논이 중간에 마을이 드문드문 있었다.</p> <p>-옛날엔 넓은 농토를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주업으로 했고, 마을의 축제로서 은행정 대동제는 2000년대 초까지 마을에서 행해졌다.</p> <p>- 은행정 마을의 골목골목과 누구네 집이 있었는지, 그 모습은 어떠했는지 그는 아직도 자세하게 기억했다. 그때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신정4동 주민과 양천구민들이 은행정 옛 마을의 과거 모습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p> <p>-박영근 씨 같은 마을 토박이가 더 나이 들어, 그의 기억이 왜곡되기 전에, 마을에 대한 생생한 기록을 남길 수 있게 돼 다행이다.</p>					
추후활동계획	박영근 씨의 기억 속에 있는 은행정 마을의 모습과 현재의 변화된 은행정 마을을 비교해서 마을의 변화를 지도로 나타내고 싶다.					
사진						

주제: 양천구 목동(새말)의 옛 모습과 현재의 지명 찾기

기록화 방법	인터뷰를 통한 기록 수집 (인터뷰 내용은 음성파일 저장)		보고서 회차	3회	제출일	2022. 7. 30.
주요 장소	목동(나말, 새말)과 주변마을: (마장, 모세미, 엄지미 등)	장소 설명	새말: 목2동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부근 나말: 대일고와 목사랑시장 쪽으로 양씨집성촌 달거리 :바깥 달거리, 안 달거리가 있었다. 마장 -홍익병원(구 제성병원뒤쪽에서목동아파트) 모세미 - 영도초교 앞쪽 엄지미 / 현 우성아파트			
		수 집 일	2022. 7 1. ~ 2022. 7,30			
		활 동 가	서인숙, 윤명옥, 김정은			
참고자료	햇살이 비치고 냇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양천구(양천문화원 발간) 나말 사람들이 들려주는 마을 이야기,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금번 활동 내용	[주요목표] 양천구의 옛지명 가운데 새말을 기록 자료와 현장 답사를 통해 그 유래를 알아보고 및 사진 및 지역 주민의 구술을 듣고 그 의미를 확인한다.					
	[주요결과1] 여러 번 통화를 해서 2022년 7월27일 대면 인터뷰를 통하여 목동의 옛날 마을이었던 새말과 부근 마을에 대한 유래와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지금도 새말이라는 이름이 목2동 경로당에 남아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주요결과2] 19살에 목동으로 시집을 와서 현재까지 52년을 살고 계신 문OO은 목동은 논과 밭, 산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였다. 양천에 얽힌 속담인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장화는 필수품이었다고 하였다. 대부분이 논, 밭이었지만 문OO님은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장사를 해서 남매를 키웠고, 자녀들이 다 커서는 지역에서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하셨다고 하였다. 앞으로 목동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꿈이라고 하시며 인터뷰를 마쳤다. 인터뷰 내용은 음성파일로 저장했다.					
추후 활동 계획	주민 문OO님이 알려진 옛 마을의 흔적이 있는 곳 목2동 새말 경로당과 달거리 경로당을 방문하여 주민들 이야기도 듣고, 사진도 촬영하여 지도에 표시할 예정이다. 새말과 부근의 마을에 관해 인터뷰를 통해 폭넓게 기록할 예정이다.					
사진						